

- 주위를 둘러보자 -

대학 1학년 시절로 25년 전의 일이다. 친구와 선후배들 10여명이 모인 새벽 2시경의 술자리에서 객기 넘치는 시험을 했던 생각이 난다. 자기 친구만큼은 100만 원쯤 되는 술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새벽 2시에라도 찾아와 주는 돈독한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한번 시험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다. 시험 조건은 이랬다. 술값이 100만 원이고, 그 돈이 없어 술집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했고, 현재는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조서를 받고 있는데 술값만 해결하면 집에 보내 준다고 하니 찾아와 술값을 지불해 줄 수 있냐고 말이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10여명 모두가 다들 자신하면서 술값을 지불해줄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비록 새벽 2시지만 자신이 전화하면 반드시 술값을 지불 할 것이라 자신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 없다는 사람, 이런 저런 사유로 찾아와 주기 곤란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또 다른 친구에게 걸고.... 모두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뻘했다.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면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나를 봐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단 한사람에게만 전화를 걸어 보겠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음~ 성희(남자임)야! 안자고 뭐하냐? “이 시간에 전화 한 게 사고 쳤냐?” 물론이다. 술 먹다 술값 없다고 경찰서 붙들려 왔지! 100만원 조금 못 되는데 술값을 지불해야 집에 보내 준다는데 와 줄 수 있나 해서? “어디냐?” 전주 완산경찰서. “지금 대천(현 보령시)이니까 오토바이로 가면 2시간 30분쯤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있어라!” 난 알았다면서 전화통화를 마쳤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친구라고 하는 거다 이 사람들아” 난 다시 성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했고, 뭐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 되었다. 한참동안 주변사람들은 내 친구 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는 하면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었다.

어쨌거나 시험을 했다는 미안함과 그 시험은 통과해 줬다는 감사함을 어찌 표현하고, 또 갚겠는가? 그러나 나를 위한 성희의 행동은 마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이후에 성희를 만나서 이야기 하던 중 술값을 치러야 집에 보내 준다는 나의 내기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성희는 당시 자신의 지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갖게 된 돈이 100만원이 조금 넘게 있어서 알았다고 했고, 본인도 그 돈이 없었다면 안 된다고 했을 거라는 것이었다. 마음이 있더라도 돈이

없었다면 그 누가 그러겠노라고 하겠는가?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생각해 보자.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고등학생 상철(가명)이의 사례를 보자. 정당한 대가없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연과 조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토바이를 보니 욕심이 생긴 것도 있겠지만 굳이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러함에도 훔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훔칠 확률은 확연히 줄어들었을 것이란 것을 말하고 싶다.

양심적인 방역작업을 한 수기를 봤을 때 너무나 숙연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나는 공직자로 방역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때는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다. 모두 두 명으로 연막 소독 1명과 분무소독 1명을 사역하면서 관할 지역에 대한 방역 업무를 담당 했다. 모두 하절기에 이루어 졌으며, 연막소독은 일몰이후에 하고, 분무소독은 새벽부터 이른 오전까지 이뤄 졌다. 연막소독은 40대 중반의 인부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을 위주로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 하고는 했다. 하지만 항상 소독약품이 남았고, 어떤 날은 자기 집 앞 골목은 왜 소독을 하지 않느냐며 민원이 제기되고는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주로 사람들 많은 곳, 사람들 많은 시간에 맞춰 돌아다니며 소독을 한 것이고, 본인 볼일 이 있는 날이면 방역을 누락하는 경우까지 있곤 했다.

분무 소독은 약통을 등에 짊어지고 하는 것으로 70이 넘는 어르신은 10년 넘게 해오고 계셨다. 이분은 골목골목 배수구나 하수구,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소독을 하셨다. 사람이 별로 없는 새벽 시간에 소독을 하고 또, 유동인구가 적은 작은 골목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실시하다 보니 분무소독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말이다.

연막소독을 하시던 분은 40대 중반으로 낮에는 오토바이가게에서 일을 하고, 퇴근이후에 연막소독을 했다. 겹 벌이를 하다 보니 피곤하기도 했을 테고, 담당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감독하는 것도 아니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만 의식해서 일을 했던 것이다. 반면에 분무소독을 하시던 그 어르신은 비록 쉬엄쉬엄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분무소독을 하셨던 것이다. 다음 연도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연히 연막소독을 하던 분을 다시 채용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불법어구 사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던 어부가, 단속으로 어로활동을 못하자 경매1등을 한 어부의 이야기를 보자. 수많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어로활동 금지 등이 시행되지만 돈의 유혹 앞에 수많은 어부들은 쉽사리 불법 어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원전 4세기 맹자는 말했다.¹⁾ “백성을 배가고파서 죄를 짓게 밀어 넣은 뒤에 그를 처벌하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 하는 것이다” “배를 꿩고 있는 백성이 도둑질을 했다고 벌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여서 도둑질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이다. 부와 권력의 유혹 앞에 밀어 넣어 놓고 그것을 취했다고 벌한다면 백성을 굶겨 죄를 짓게 한 다음 처벌하던 기원전 4세기 때와 뭐가 다르겠는가? 물론 부와 권력의 유혹에 놓였었다는 이유로 해서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맹자가 말 했던 것처럼 부와 권력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 할 때에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타당 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되뇌어 본다. 사랑하는 가족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기분에 상관없이 주인을 반겨주는 우리 집 멍치(전통견으로 돈멍치라고 지은 건데 다들 사고멍치라 부른다)까지.... 그 어떤 돈과 또 다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촌지가 아니면 소위 있는 집 자식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곰돌이인형 눈알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촌지를 마련한 고등학교 1학년 성민이의 상황을 보자.

성민이의 눈에 비친 세상이 돈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촌지를 마련했었지만 당시 선생님은 촌지를 받는 대신 본인의 돈으로 저녁을 사주셨다. 그리고 촌지로 준비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서점에 들러 책을 살 수 있도록 인도 하셨다. 행동으로 바름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다. 그런 선생님은 만난 것이 비록 천운일지라도 성민이는 촌지를 건네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었던 것이다. 그 사건이 있었기에 성인이 된 다음 친구로부터의 부정청탁도 이겨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나라면 어땠을까? 비록 양심껏 연막소독을 하지 않던 그 40대 인부지만 나만 눈감아 주면 본인이 겹 직업을 유지 할 수 있다면서 봉투를 내밀었다면 말이다.

1) EBS 지식채널e 기원전 4세기

망설이기는 했을까? 아니면 주저 없이 거절을 했을까?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되 뇌이게 된다. 적어도 내게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상황이 없었으니 말이다.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인사평가를 앞둔 시기에 찾아온 권력의 유혹에 참담했던 기억이 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급자 선정과 중지 업무를 담당하던 때였다. 엄마와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보호받고 있었는데 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서 수급자에서 중지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 졌다.

고등학교 졸업은 통상 2월에 있고, 취업은 2~3월에 이뤄진다. 그리고 그 취업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수급자 중지는 5~6월경에 이뤄 졌다. 바로 5~6월은 정기적인 인사평가를 하는 시기였고, 당시 담당 과장님과 친분이 있던 이 수급자는 과장님을 찾아 왔고, 계속해서 수급자로 보호 받기를 요청 했다. 과장님은 국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수급자가 시장님을 찾아가 본인 상황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 한다면 본인의 국장승진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셔서 그랬을까? 나를 불러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다. 나는 물론 취업에 따른 소득초과로 중지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과장님께서서는 가족관계 단절로 (담당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하는 제도)처리해서 보호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곧 승진도 해야 되는데 승진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이다. 난 정확하게 3번을 거절했고, 3번째 거절에서는 “정 그러시다면 저는 할 수 없으니 업무 담당자를 바꿔주시면 좋겠다.” 고 까지 하면서 거절을 했다. 당시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까지 겸하고 있는 과장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이 후회 될 때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 배가고파서 죄를 짓게 등 떠밀리는 상황이 아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짐해 본다. 더 많은 부, 더 높은 권력의 유혹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자존심을 지키겠노라고 말이다. 비록 성민이처럼 방에 두고 마음 다잡을 수 있는 곰돌이 인형이 없을지언정 나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 또한 자존심을 지키며 살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든든한 방어무기 청탁금지법이 있으니 부와 권력 앞에 청렴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부디 부정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주위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자.